

## 산재의료원 일부 입원 환자들의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고덕기 · 유송희 · 송재석\* · 원종욱\* · 노재훈\*

— Abstract —

###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s' Willingness of Return-to-Work in Industrial Accident Hospitals

DuckKi Go, SongHee Yoo, Jaesuk Song\*, JongUk Won\*, Jaehoon Roh\*

*Dep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atients' return-to-work. For conducting the study, 511 samples are selected from nine industrial accident hospitals. Questionnaire are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injury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get older, have family members to be supported, are hospitalized for less than six months, have accidents caused by their mistakes, have worked i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y, have worked a company with more than 300 workers, and have worked for six months~ two years or over two years, they tend to express stronger willingness of return-to-work.

In face with the current drastic increase of economic loss from industrial accidents, it is required to be dealt with these factors in planning and managing the health care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 서 론

급속한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산업 활동 인구의 증가, 취급 분야의 다양성, 고도의 기계화 등으로 산업재해도 증가하게 되고 재해 발생 건수와 환자수

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차봉석 등, 1989). 1997년 7월말 현재 근로자 200명중 1명이 산업재해자이며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직접 손실액이 연간 8천5백79억원이다. 여기에 간접 손실 비용까지 합하면 산재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간 총 4조2천8백95억원에 이르러 산업재해는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1997).

1964년도에 산재보험이 시행된 이후 1996년 8월 말까지 발생한 산재근로자수는 총 2,930,329명으로 이 중 사망자수는 41,850명, 부상자수는 2,888,479명이며 부상자의 84.3%인 2,435,760명이 치료 종결 후 소속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 나머지 452,719명은 잔존 장애로 인한 14급의 장애 판정자로서 재취업 또는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재활훈련을 이수한 자는 총 10,574명이다. 그러나 80년대('80 '89년)의 소속사업장으로의 복귀율은 84.5%에서 90년대('90 '95년)에는 68.6%로 감소하였다(근로복지공단, 1996).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면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강화 증진될 수 있고, 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며, 간접적 재해 비용을 감소시키고(Denneth 등, 1994: The Ohio Casualty Group of Insurance Companies, 1996). 특히 산재근로자의 자신감과 안녕을 강화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Administration, 1997). 그러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결 후 재직회사 퇴직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가 종결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56.2%로 절반이 넘었고, 퇴직 후에는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근로복지공단, 1995). 이는 재해를 당한 후 산재근로자의 경제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보다 궁핍해지고 불행해짐을 시사한다. 산재로 인한 부상 후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 소득이 1/2 2/3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부상 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로 충당하고, 일부는 회사 보상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치료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조재국 등, 1996). 그러나 그간의 산재보험행정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및 휴업 보상, 잔존장애에 대한 보상만으로 산재근로자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치료 종결 이후 생활상태나 사회 적응상태에 대하여는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근로복지공사, 1996). 산재근

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후관리가 비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했던 것은 요양의 장기화와 근로자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의료 재활, 직업 재활, 사회 재활이라는 개념에서 산재근로자의 관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평생 복지개념으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산재근로자의 복귀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로 직장 복귀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노령, 남성, 제조업체 근무, 대규모 회사, 재해 전 임금이 높을 경우 등이 있고 직장 복귀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심한 장애 정도, 법적 처리의 미완료, 높은 보상금, 건설업체 근무 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Harris,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산재근로자 관리 체계는 요양 및 보상 위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사후 관리에 대한 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근로복지공사, 1993). 따라서 지금까지 산재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전적인 치료와 예방에 치중해왔고 산재근로자와 관련된 사후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했다.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대한 조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의료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산재의료관리원 직영 9개 산재병원 입원환자 1,659명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1996년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별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자는 응답자 가운데 본인이 직장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환자 1,021명, 직장 복귀 의사에 명확히 응답하지 않은 환자 127명을 제외한 총 511명이었다.

### 2. 연구 내용

산재병원 입원환자의 의식조사를 위해 일반적 특성, 입원 및 재해와 관련된 특성, 입원당시 근무직장에 대한 사항을 설문의 내용으로 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사항은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가족 부양 책임이었다. 이

변수들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주내의 표본 수를 고려하여 범주화하였는데,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하였고, 학력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입원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범주화하였다. 결혼상태는 결혼경험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부부가 같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둘째, 입원 및 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입원 기간, 재해 발생 책임, 상해 종류이었으며,

셋째, 입원당시 근무 직장에 대한 사항은 근무 업종, 담당 직종, 사업장 규모, 근속 기간, 직장 만족도이었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직장복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와 입원 및 재해에 관한 변수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와 복귀의사에 관한 연관성은 일차적으로 이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외의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SAS release 6.12 for windows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재환자들의 직장 복귀의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변량 분석에서 의미가 있다고 나온 변수들과 다른 중요변수들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근무 지역별 분포는 총 511명 중 경인지역이 181명(35.4%), 강원지역이 125명(24.4%), 경상지역이 112명(21.9%)이었으며, 전라지역이 54명(10.6%), 충청지역이 39명(7.7%)이었다. 남자 477명(93.4%), 여자 34명(6.7%)으로 대부분 남자이었으며, 50세 이상이 56.3%로 많았다.

### 2. 대상자의 특성별 직장 복귀 의사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복귀 의사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에 따라 산재근

로자의 직장 복귀 의사를 분석한 결과, 남녀간에 직장 복귀 의사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인 경우 직장 복귀를 하겠다가 48.8%인 반면, 50대 미만에서는 22.1%로 50대 이상에서 의미 있게 직장 복귀의사가 높았다( $p<0.001$ ).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과 기혼간에 직장 복귀 의사에는 차이가 없었고,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는 직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5.4%로 더 높았으나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응답자가 71.4%로 더 높았으며( $p<0.001$ ), 가족 부양 책임 유무에 대한 직장 복귀 의사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 나. 입원 및 재해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직장 복귀 의사

입원 기간, 재해 발생 책임 여부, 상해 종류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의사를 조사하였다. 입원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은 직장 복귀를 하겠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해서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51.9%이었지만 6개월 1년 미만은 33.3%, 1년 이상은 17.3%로 입원 기간이 길수록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환자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재해 발생 책임별 직장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5.2%로, 재해발생이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30.8%에 비해 직장 복귀를 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p<0.001$ ).

상해 종류별 직장 복귀 의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특히 진폐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골절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의 62.8%에 비해 복귀 의사가 더욱 낮았다( $p<0.001$ )(Table 2).

### 다. 근무 직장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직장 복귀 의사

근무 업종 및 담당 직종, 사업장 규모, 근속 기간, 직장 만족도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의사를 살펴보았다. 근무 업종으로는 광업의 경우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비율이 18.3%로 가장 낮았고 건설업은 30.9%로 기타 업종(53.7%)에 비해 낮았다( $p<0.001$ ).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사무직 근로자가(58.8%) 생산직 근로자(34.4%)에 비하여 높았다

**Table 1.** Willingness of return-to-work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Would return No. (%)	Wouldn't return No. (%)	$\chi^2$ value
Sex			
Male	174(36.5)	303(63.5)	0.795
Female	15(44.1)	19(55.9)	
Age			
< 50	139(48.8)	146(51.2)	38.405***
≥ 50	50(22.1)	176(77.9)	
Marrital status			
Single	40(33.1)	81(66.9)	1.050
Couple	149(38.2)	241(61.8)	
Education <sup>1)</sup>			
≤ High school	164(34.6)	310(65.4)	18.938***
≥ College	25(71.4)	10(28.6)	
Responsibility of family support			
Yes	167(37.6)	277(62.4)	0.570
No	22(32.8)	45(67.2)	
Total	189(37.0)	322(63.0)	

<sup>1)</sup>excluded non-responders. \* p<0.05, \*\* p<0.01, \*\*\* p<0.001

**Table 2.** Willingness of return-to-work according to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Would return No. (%)	Wouldn't return No. (%)	$\chi^2$ -value
Hospital days			
< 6 months	126(51.9)	117(48.1)	50.582***
≥ 6 months, < 1 years	35(33.3)	70(66.7)	
≥ 1 year	28(17.3)	134(82.7)	
Responsibility to accident			
Patient	37(55.2)	30(44.8)	17.406***
Employer	99(30.8)	223(69.2)	
other	28(46.7)	32(53.3)	
Injury			
Bone fracture	89(37.2)	150(62.8)	23.876***
Pneumoconiosis	10(13.5)	64(86.5)	
other <sup>†</sup>	90(45.7)	107(54.3)	
Total	189(37.0)	322(63.0)	

\*\*\* p<0.001

<sup>†</sup>, herniated nucleosus pulposus, frostbite, edema, contusion, laceration, poisoning, abrasion, etc.

(p<0.001).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비율이 33.8%로, 300인 이상 사업장 43.9%에 비하여 낮았다(p<0.05).

**Table 3.** Willingness of return-to-work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Would return No. (%)	Wouldn't return No. (%)	$\chi^2$ -value
Job classification <sup>1)</sup>			
Mining	28(18.3)	125(81.7)	51.207***
Construction	43(30.9)	96(69.1)	
other <sup>2)</sup>	117(53.7)	101(46.3)	
Job type <sup>3)</sup>			
White collar	30(58.8)	21(41.2)	11.742***
Blue collar	158(34.4)	301(65.6)	
Employees(No.)			
< 300	93(33.8)	182(66.2)	4.915*
≥ 300	86(43.9)	110(56.1)	
Work duration <sup>1)</sup>			
< 6 months	38(25.9)	109(74.1)	11.063**
≥ 6 months, < 2 years	34(41.0)	49(59.0)	
≥ 2 years	116(41.7)	162(58.3)	
Job satisfaction <sup>1)</sup>			
Full	78(47.6)	86(52.4)	15.790***
Minimal	91(35.4)	166(64.6)	
Dissatisfaction	20(22.7)	68(77.3)	
Total	189(37.0)	322(63.0)	

<sup>1)</sup>excluded non-responders <sup>2)</sup>manufacture, energy and water service, transportation, storage, communication, services; <sup>3)</sup>excluded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ies;  
 \*\* p<0.01, \*\*\* p<0.001

근속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은 74.1%, 6개월~2년 미만은 59.0%, 2년 이상은 58.3%로 근속기간이 짧을 수록 복귀의사가 높았다(p<0.001). 또한 직장 만족도별로는 직장에 만족한다가 47.6%, 보통이다가 35.4%, 직장에 불만족하다가 22.7%로 직장에 불만족한 경우에 비해 직장에 만족할 경우 직장에 복귀 하겠다는 산재 근로자가 많았다(p<0.001)(Table 3).

### 3.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 복귀 의사가 높았다. 교육 수준으로는 고졸 이하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인 산재환자가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확률이 약 2배 가량 높았으며, 가족 부양책임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부양책임이 있는 경우가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1.72배 높았다.

입원 및 재해와 관련된 특성 중 입원기간은 6개월 미만의 산재환자는 6개월~1년 미만의 산재환자에 비하여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1.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인 산재환자에 비하여서는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2.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 책임으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1.55배 높았다.

근무 직장과 관련된 특성 중 근무 업종으로는 광업에 종사하는 산재환자에 비하여 건설업과 기타 업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산재환자는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각각 2.10배, 1.88배나 높았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산재환자에 비하여 300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1.58배 높게 나타났다.

근속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에 비하여 6개월~2년 미만 근속한 산재환자가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1.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willingness of return-to-work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Odds ratio	$\chi^2$ -value
Sex				
(0: male)	Female	0.3475	1.4155	1.64
Age(years)				
(0: ≤49)	≥50	0.0362	1.0369	7.17**
Marrital status				
(0: unmarried)	Married	0.1193	1.1267	0.42
Education				
(0: ≤high school)	≥College	0.6911	1.9959	4.75*
Supported family				
(0: yes)	no	-0.5401	0.5827	5.15*
Hospital days				
(0: <6months)	6months~1year	-0.4592	0.6318	7.31**
	≥1year	-0.7396	0.4773	21.40***
Responsibility to accident				
(0: patient)	Employer	-0.4407	0.6436	6.77**
	etc	-0.2481	0.7803	1.34
Injury				
(0: bone fracture)	Pneumoconiosis	-0.0404	0.9604	0.02
	etc	-0.1541	0.8572	0.62
Job classification				
(0: mining)	Construction	0.7400	2.0959	9.81**
	etc	0.6304	1.8784	9.46**
Job type				
(0: White collar)	Blue collar	0.1165	1.1236	0.21
Employees no.				
(0: <300)	≥300	0.4549	1.5760	8.71**
Work duration				
(0: <6months)	6 months~2years	0.4117	1.5094	4.98*
	≥ 2years	0.6009	1.8238	10.97***
Job satisfaction				
(0: Full satisfaction)	Minimal satisfaction	-0.0177	0.9825	0.02
	Dissatisfaction	-0.2448	0.7829	1.53

\* p<0.05, \*\* p<0.01, \*\*\* p<0.001.

는 1.82배 높았다(Table 4).

### 고 찰

산업재해는 점점 더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병원에 입원한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기 위한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으로는 고졸 이하

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인 산재환자가 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고학력일수록 주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 복귀 의사가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력 연수별 임금 수준을 『1년 미만 경력자』임금을 기준(100.0)으로 하여 살펴보면 『1~2년』 108.4, 『3~4년』 123.1, 『5~9년』 148.3, 『10년 이상』 189.3으로 경력 연수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형태를 나타나고 있으며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1~2년」 109.1, 「3~4년」 125.4, 「5~9년」 149.0, 「10년 이상」 204.6의 수준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부, 1996). 따라서 경력 연수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 경우 직장 복귀 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임금이 높을 경우 직장 복귀 의사가 높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 복귀 경향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Harris, 1997), 20대의 직장 복귀가 30~40대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연구와도 유사하였다(구본권, 1993). 산재병원에 입원한 산재근로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역할이 커지게 되고 재취업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도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가족 부양 책임이 없는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에 비하여 부양책임이 있는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높았다. 가족을 부양하는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인 경우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입원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에 비해 6개월~1년 미만과 1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일 경우 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낮았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환자는 직장 복귀 의사가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는 입원기간이 긴 경우가 상해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직장복귀의사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직장 복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장애 정도라는 연구와 일치한다(Hsieh 등, 1997).

재해 발생 책임으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산재병원 입원 산재근로자에 비해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낮았다.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장의 안전시설 미비(57.8%)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보고(근로복지공단, 1995)와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효율성, 편의시설 및 작업 환경, 임금 수준, 직장분위기 등 여러 조건들이 사업주나 산재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연구보고(강세운, 1993)에 비추어 보면 작업환경이 불량으로 인한 산재 재발에 대한 우려와 사업장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또한 산재발생 원인이 회사의 책임일 경우 산재보상협의에 대한 회사측과의 마찰이 직장 복귀를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 업종별로는 광업에 종사하는 산재병원 입원 산재근로자에 비하여 건설업과 기타(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산재병원 입원 산재근로자의 경우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높았다. 이는 산업재해장해보상금 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현재 직장에 복귀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는 근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제조업체일 경우 직장 복귀 경향이 높았다는 연구(Harris,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는 300인 미만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약 1.6배 높았다. 따라서 중소기업(300인 미만)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산재근로자인 경우 직장 복귀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규모가 클 경우 직장 복귀 경향이 높다는 연구(Harris, 1997)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가 많았다는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와는 반대의 결과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작업 환경, 안전 교육 미흡, 재해예방시설투자 부족 등 산재발생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데 반하여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는 작업환경이 좋고 복지시설 및 임금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복귀의사가 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규모에 관한 근로자의 복귀의사 및 복귀실태에 관한 후속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속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에 비하여 6개월~2년 미만과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인 경우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높았다. 근속 기간이 높은 경우 입사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비하여 경제적(임금, 퇴직금) 이익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책임도 높아 직장 복귀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 수

준, 가족 부양 책임, 입원 기간, 재해 발생 책임, 근무 업종, 사업장 규모, 근속 기간의 변수들이 최종적인 설명변수이다.

그러나 산재병원 입원환자들의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설계 및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에 있어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직장 복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현재 산재의료체계는 예방 및 치료를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사후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는 경제적 수준과 재해 정도에 따라 직장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강세운, 1993; Harris, 1997),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재해 전 임금수준, 재해 전후의 임금수준의 변화 등, 경제적 수준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직장 복귀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정도의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상해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입원기간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산재병원에 입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산재환자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재병원에 입원한 근로자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귀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제외하여, 선택편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이후보다는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장 복귀에 관한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결 론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의료체계는 치료 및 예방에 치중하여 아직까지 산재근로자의 치료 후 직장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9개 산재병원

에 입원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511명을 대상으로 직장 복귀 의사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경우, 입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해 발생 책임이 본인에 있을 경우, 근무 업종 중 건설업, 기타(제조업 등)에 종사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근속 기간이 6개월~2년 미만 또는 2년 이상인 경우 직장 복귀 의사가 높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인을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사후관리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상해 정도를 포함하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미흡함이 있다. 또한 대상근로자의 선정에서 선택편이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산재병원 입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상해 정도, 기타 직장 복귀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주요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인용 문헌

- 강세운. 중도 장애인의 직장복귀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I.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방안 세미나, 1993
- 구본권. 중도장애인의 직장복귀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II.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방안 세미나, 1993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1995
- 근로복지공단. 1996년도 산재보험 실적분석 1/4분기, 1996
- 근로복지공사. 1997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요구 자료, 1997
- 김용하, 최병호, 이종섭.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노동부. 노동백서, 1996
- 노동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추진평가, 1997
- 조재국, 홍문식, 김용하, 윤경일, 김은주, 백도명, 박은철, 옥동석. 산재전문종합병원 및 산업의료전문교육기관 건립 기초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산재보험 환자의 의료이용(서울 지역의 손 손상환자를 중심으로). 대한산업의학회지 1989; 1(2) :168-17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6

Denneth JC, Dianne EB, Jim IC, Rubin MF, Robert MG, Vernon GL, Byron L. Early return to work after illness or injury. Ad Hoc Committee on Return to Work after Illness or Injury Issues Council, 1994

Harris K. Defining, measuring, & predicting

return to work in Florida.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Florida 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 Security, 1997

Hsieh CL, Lee ML. Factors influencing vocational outcomes following stroke in Taiwan: A medical center-based study. Scan J Rehab Med 1997; 29:113-120.

The Ohio Casualty Group of Insurance Companies. Return to work program, 1996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Administration. Workers' compensation and early return to